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项目

동상족

东乡族

Dongxiangzu

편자 곽우파
역자 김춘화



로녕민족출판사

외국어고학과 연구출판사

© 金春花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东乡族：朝鲜文 / 郭宇波编；金春花译. —沈阳：辽宁民族出版社，2014. 6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ISBN 978-7-5497-0820-8

I. ①东… II. ①郭… ②金… III. ①东乡族 (古族名)
—民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83.3-4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4)第143530号

东乡族

DONGXIANGZU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110003

印 刷 者：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面尺寸：180mm×240mm

印 张：5

字 数：40千字

印 数：1-1500

出版时间：2014年6月第1版

印刷时间：2014年6月第1次印刷

责任编辑：张学林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李 京

标准书号：ISBN 978-7-5497-0820-8

定 价：18.00元

法律顾问：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www.lnmzchs.com

淘宝网：http://lnmz2013.taobao.com

举报电话：024-23284336

邮购电话：024-23284335

联系电话：024-23284340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가나다 순)

곽우과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즈다링(이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자족)

전산천

정 아(회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짱족)

왕해연(창족)

심고전문가(가나다 순)

김여빈(회족)

송 전(몽골족)

수 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뭇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좡족, 요족, 바이족, 투자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외족, 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창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양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통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어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타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싸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짱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툽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목 록

제1장 등상족이 모여사는 곳

- 칭구만에 관한 이야기 /9
- 가물귀신에 관한 이야기 /11
- 적자랍무의 유래 /13
- 녀와가 하늘을 기운 이야기 /21
- 포도산과 곶창치에 관한 전설 /23

제2장 등상족의 생산풍속습관

- 감자에 관한 전설 /31
- “도행”에 관한 전설 /33
- 등상족의 수공업 /34

제3장 등상족의 의식주와 교통

- 등상족의 복장 /36
- 떨어질수 없는 삼포대—— 등상족의 음식 /39
- 닭꼬리를 양보하는 풍속습관 /41
- 산에 의지해 지은 집—— 등상족의 주택 /43

동양족의 종교건축 /44

산넘고 물건너 천하에 통하기 —— 동양족의 교통 /47

제4장 동양족의 신앙과 풍속습관

하무저바바에 관한 이야기 /49

종교에서 온 명절 —— 동양족의 계절풍속습관 /52

잘 어울리는 종교와 생활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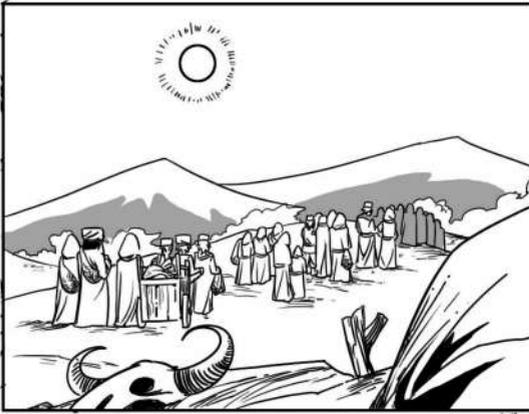
손벽 치며 “할리” 웨치기 —— 동양족의 혼인과 런애평속습관 /59

“할리”를 부르는 풍속습관의 유래 /61

제5장 동양족의 민간예술

미미에 관한 전설 /73

제6장 동양족의 민간체육



제1장 동상족이 모여사는 곳

동상족은 우리 나라 서북지구 소수민족의 하나로서 주로 감숙성 동상족자치현, 적석산보안족동상족싸라족자치현 및 화정, 광하, 림하 등 현에 분포되어있다. 동상족은 본 민족언어를 갖고있지만 문자는 없어 한어를 겸하여 사용하고있으며 한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있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목축업을 겸하고있다. 2000년 전국인구보편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동상족인구는 51.38만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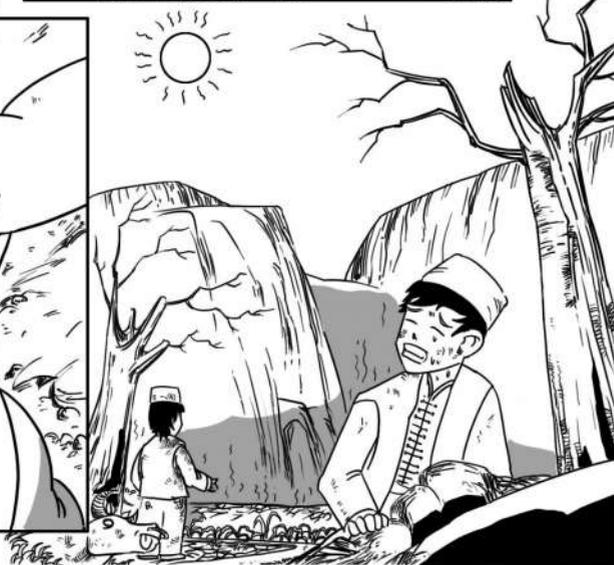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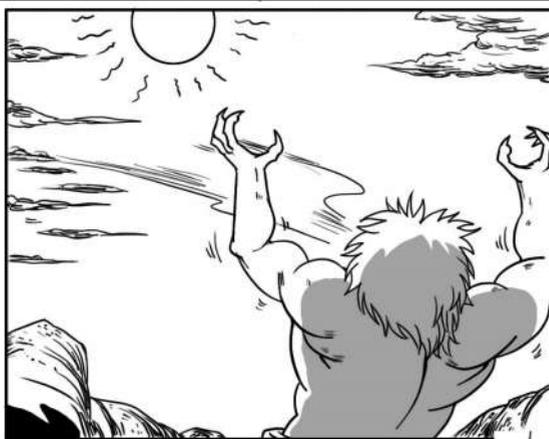
동상족자치현 현성동쪽으로 10리 좌우에 “칭구만(称够湾)”이란 지방이 있다. 이 지명의 유래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

칭구만에 관한 이야기

먼 옛날에 중앙아시아 싸얼타인(撒尔塔人)(이슬람교를 믿는 중앙아시아의 한 민족)의 한 부락이 장기적으로 외족들의 침략을 받다나니 전란이 끊임없었고 인민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을 키워준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동쪽방향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발붙일 곳이 없어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어렸다. 이때 《코란경》을 정통하고 인생의 파란곡절을 겪어온 싸이드(赛义德)가 사람들앞에 나타났다. 그는 저울과 천주머니를 내놓으며 말했다. “우리 종교의 시조인 마호메트성인이 향토에 미련을 두는것은 신앙의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린 더는 슬퍼하지 맙시다. 이번에 우리가 먼길을 떠나면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한줌의 흙을 천주머니에 넣겠는데 달아보고 량이 찻을 때 도착된 곳이 바로 우리가 살기에 알맞춤한 곳이니 우리의 고향땅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싸이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얼굴에 어렸던 근심이 싹 가셔졌다.

하여 사람들은 신심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매 한곳에 이를 때마다 한줌의 흙을 주머니에 넣은후 달아보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줄곧 걸어서 하주(河州) 이동의 산굽이에 이르렀을 때 천주머니는 이미 팍 찻고 분량도 충분했다. 백발이 성성한 싸이드가 그 흙을 이 산굽이에 뿌린후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이 산굽이를 “칭구만(称够湾)”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싸얼타인과 당지의 백성들이 통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후대가 바로 동상족이다.



등상족자치현은 감숙성중부, 립하회족자치주동북부에 위치하고있는데 황토고원과 청장고원의 과도지대에 자리잡고있다. 등상족자치현은 등상족의 발원지로, 비단의 길 남쪽통로로 이름이 났으며 전국에서 유일한 등상족을 주체로 한 소수민족자치현이다. 이 지역은 지세가 비교적 높아서 메마르고 생존조건이 열악하다. 등상족은 굳세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민족으로서 험악한 자연조건앞에서 종래로 생활에 대한 기대를 버린적 없고 간고한 싸움을 멈춘적 없다.

새 중국이 성립된후 당과 각급 정부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등상족은 본지역의 가난하고 낙후한 면모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여 당시의 수토류실이 통제되었고 많은 산비탈을 층층제전과 좋은 목장으로 만들었다.

당지 인민들은 옛날의 가뭄과 기아에 대한 기억이 아주 깊었는바 지금까지도 가물귀신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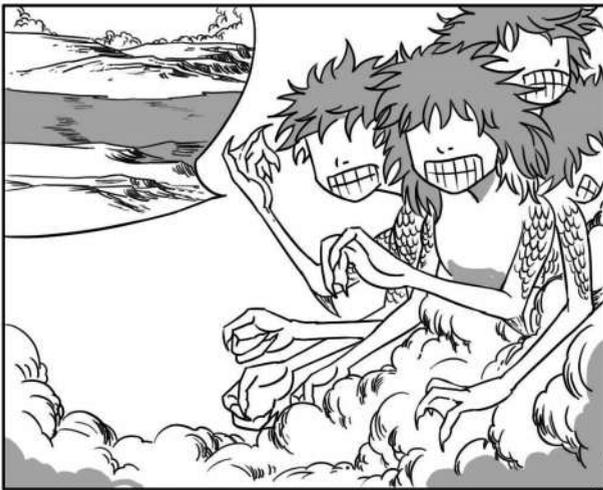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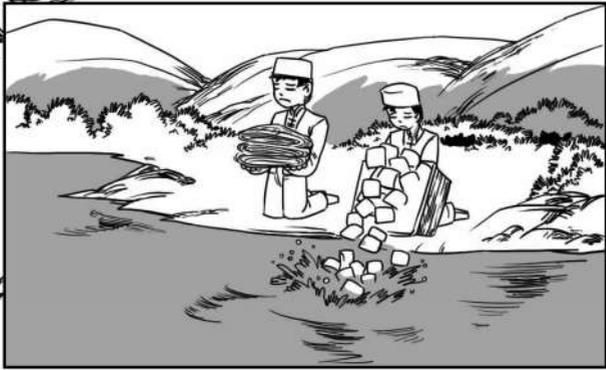
가물귀신에 관한 이야기

상고시기, 중원지구에 전문적으로 가물피해를 만들어내는 가물귀신이 있었다. 민간에서는 그가 대우(大禹)가 물을 다스릴 때 살해되었다고 한다.

사실 그는 그때 죽은것이 아니라 작은 부상을 당했을뿐인데 중원지구에서 더는 살수 없어 대서북으로 도망쳤다. 등상지구에 해마다 가물고 비가 적은것은 바로 이 가물귀신의 작간이었다.

《신이경(神异经)》에서는 가물귀신은 “옷을 입지 않았는데 코는 하늘을 향했고 걸음걸이가 상당히 빠르며 그가 나타나는 곳에는 풀 한포기도 나지 않았다”고 했다. 가물귀신의 코구멍이 하늘을 향해 자랐기에 비가 오면 비물이 코구멍에 들어가서 아주 괴로왔다. 하여 가물귀신은 늘 법력으로 가물이 들게 하였다. 비가 내리려는 징조가 보이면 그는 하늘을 향해 힘껏 불어댄다. 그의 법력은 아주 커서 하늘에 대고 한번 불기만 하면 인차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온다. 이렇게 가물귀신은 뜨거운 해벌아래서 별을 쪼이며 즐겼다.

이렇게 되자 가물귀신은 편했지만 그곳의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었다. 오래동안 가물이 들고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은 말라버리어 수확을 얻지 못했다. 가물귀신은 변신을 잘하여 각종 형상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으며 도처에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 가물귀신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고통은 말할수 없었다.



동상죽자치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가장 엄중한 자연재해는 가물이다. 당지의 한 산기슭에 적탄(赤灘) 또는 적자랍무탄(赤孜拉妮灘)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듣는바에 의하면 이곳은 원래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호수였다고 한다.

적자랍무라는 이 지명의 유래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다.

적자랍무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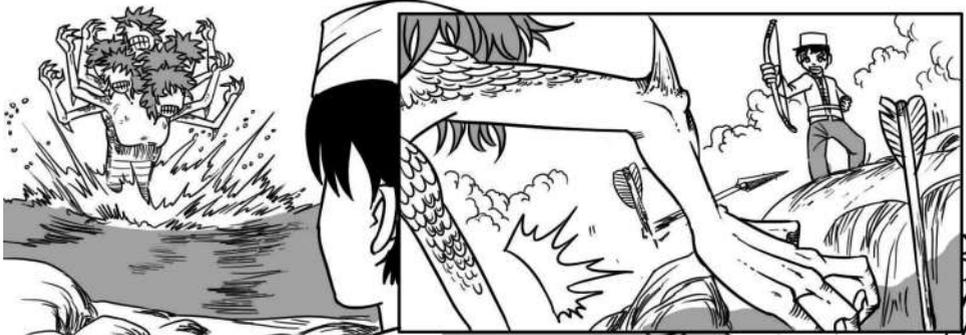
먼 옛날, 깊이를 알수 없는 큰 호수에 아주 무서운 괴물이 있었는데 그는 머리 일곱에 팔이 여덟개였고 쇠로 된 손에 동으로 된 손톱을 가졌다. 무슨 물건이 든 마음에 들면 한손으로 거머쥐고 놓지 않았다.

착한 인간들은 이 괴물이 수작을 부려 나쁜짓을 할가봐 두려워 해마다 가을이면 49시루의 찢빵과 64접시의 파배기를 호수에 던져주었고 소와 양도 잡아서 괴물에게 바쳤다. 만약 괴물을 노엽히는 날이면 우박을 내려 곡식을 망가뜨리거나 흑풍을 몰고 와서 사람들을 호수에 말려들게 하였다...

어느날, 신혼인 적자와 랍무가 들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수심에 잠겨 긴 한숨을 쉬는것이였다. 두 늙은이는 적자와 랍무가 거듭 물어서야 정황을 설명했다.

실은 괴물이 용모가 아름다운 랍무를 마음에 두고 오늘 아침 흑풍으로 변해서 그의 집에 나타나 만약 3일내에 랍무를 호수에 들여보내지 않으면 이 부근의 모든 곳에 풀 한포기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다.

적자와 랍무는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괴물을 소멸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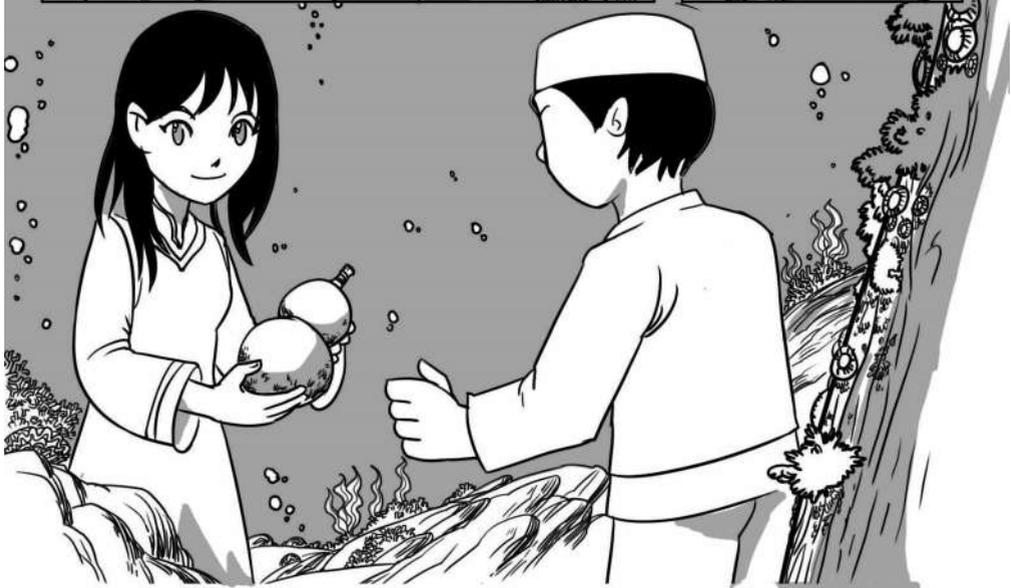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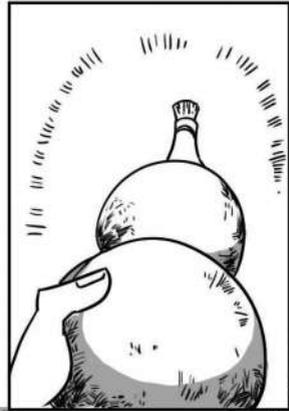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삼일째 되던 날 아침, 용감한 적자는 활과 화살을 메고 아끼는 매를 데리고 나서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랫무와 작별인사를 했다. 죽을 각오로 괴물과 싸워 이 천년의 재화를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한것이다.

온순하고 정이 많은 랫무는 손수 짠 양털띠를 남편의 허리에 단단히 매주었다. 적자를 바라보는 랫무의 눈은 마치 “사랑하는 남편이여, 당신이 악마와 싸우다가 잘못된다면 당신의 안해는 목숨을 걸고 악마와 싸울거예요. 절대로 당신의 명성을 더럽히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거예요.”라고 말하는듯했다.

적자는 랫무와 작별하고 호수가에 와서 큰소리로 웨쳤다. “괴물아, 담량이 있으면 수면으로 올라오너라. 넌 이제 끝장이다!” 괴물은 수궁에서 웨침소리를 듣고는 너털웃음을 웃으며 말했다. “멍청한 자식, 정말 살기가 싫은가보구나. 내가 올라가 너를 찢어서 가마에 넣고 삶아먹을테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물위에 올라왔다.

원썩가 서로 만나자 혈안이 되었다. 적자는 괴물을 향해련속 화살을 아홉발 당겼다. 그러나 괴물은 쇠손으로 다 막아버렸다. 적자는 매를 풀어 괴물의 눈알을 파게 하려 했다. 그러자 괴물이 두손을 벌려 매의 목을 조르려 들었다. 적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긴 창으로 힘껏 괴물의 가슴을 찔렀다. 찰나 “아이쿠” 소리와 함께 창은 괴물의 가슴에 박히고 적자도 지나치게 힘을 준탓으로 깊은 호수에 빠지고말았다.

한낮이 되어 부상당한 매가 집으로 날아와서 랫무의 발밑에 쓰러지더니 슬프게도 죽어버렸다.



랍무는 일이 잘못된것을 알고 슬픔에 잠겨 통곡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줄기 흑풍이 불어오더니 랍무를 감아서 깊은 호수로 끌고들어갔다.

이 바람은 바로 증상을 입었으나 아직 죽지 않은 괴물이 불어온것이다. 괴물은 랍무를 잡아온후 통라비단옷을 입은 영준한 귀공자로 변신했다. 그는 부상당한 가슴을 가리고 히죽거리며 랍무더러 자기의 색시가 되여달라고 했다. 랍무는 화가 치밀어올라 “너는 내 몸은 뺏아왔지만 내 마음은 뺏지 못할것이다!”라고 말했다.

괴물은 여러가지 진귀한 보배들을 꺼내놓고 랍무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랍무는 한마디도 응하지 않았다. 괴물은 조롱박 하나를 꺼내더니 랍무에게 말했다. “이 조롱박안에 이 호수를 담아놓았지. 네가 나하고 결혼만 하면 이것을 네게 주마. 그런데 절대 조롱박뚜껑을 열어서는 안돼.”

랍무는 조롱박의 비밀을 알아내여 남편의 복수를 갚기 위해 꾀를 썼다. 그는 아무 내색도 내지 않고 물었다. “왜 조롱박뚜껑을 열어서는 안된다는거지?” 괴물은 랍무가 말을 하자 마음이 동한줄 알고 기뻐하며 조롱박뚜껑의 비밀에 대해 말했다. “이 조롱박뚜껑이 바로 호수의 동쪽입구이다. 호수는 여기서 흘러나가 황하로 들어가며 줄곧 동해로 흘러들지. 만약 조롱박뚜껑을 열면 터진 큰물이 우리를 쓸어버리고 물속에서 용솨음치며 뿔구는 돌들이 우리를 분신쇄골이 되게 할거니까.”

“아, 그렇구나.” 랍무가 눈물을 거두고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그 조롱박을 한번 보게 해줘.” 괴물은 랍무의 웃는 얼굴을 보자 마음을 돌린줄로 알고 인차 조롱박을 넘겨주었다.